

배포일시	2019. 12. 20.(금) 11:00 (총 2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김재영 사무관 김연희
		전화번호	062-720-0669

광주 첫눈 시기 갈수록 늦어지는 경향

- 최근 10년 동안 후반부로 갈수록 첫눈 시기가 평년보다 늦어져 -
- 올해 첫눈 평년보다 광주 8일, 목포 7일, 흑산도 3일 늦어 -

□ 광주·전남 첫눈

- (2019년 첫눈) 올해 첫눈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바다와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에는 12월 3일에 진눈깨비 형태로 관측되었습니다. 작년(12월 7일)보다 4일 빠르고 평년(11월 25일)보다 8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흑산도
2019년	12.3	12.5	-	12.5
작년대비	4일 빠름	2일 빠름	-	2일 빠름
평년대비	8일 늦음	7일 늦음	-	3일 늦음

- (평년) 광주·전남의 첫눈 평년¹⁾ 관측일은 관측기록이 있는 지역 중 가장 빠른 곳은 광주로 11월 25일이며, 가장 늦은 곳은 12월 9일인 여수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흑산도
평년	11.25	11.28	12.9	12.2

- (최근 10년) 최근 10년²⁾간 첫눈이 가장 빨랐던 해는 2009년이며, 가장 늦었던 해는 광주지역을 제외하면 201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참고> 대부분 진눈깨비나 약한 눈의 형태로 내려 눈이 쌓이지 않았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첫눈으로 2015년 11월 26일 5.5cm가 쌓이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쌓인 해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표2 참고>

1) 평년: 30년(1981~2010년) 평균값
2) 최근 10년: 2009년 11월 ~ 2019년 3월

<표 1>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10년 중 가장 빠른 해와 가장 늦은 해

	광주	목포	여수	흑산도
가장 빠른 해	2009.11.2	2009.11.17	2009.11.16	2009.11.17
가장 늦은 해	2016.12.14	2010.12.9	2010.12.26	2010.12.14

- (첫눈의 원인) 광주·전남의 첫눈은 주로 ①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 찬 공기와 서해상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부근 공기가 만나면서(해기차) 생성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② 약한 기압골 또는 ③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 있는 가운데 서해상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불안정에 의해 진눈깨비 또는 눈이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첫눈을 적설이 기록되지 않더라도 눈 현상(싸락눈, 진눈깨비, 눈)이 단시간에 나타났을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2>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10년 첫눈 현황

연도	광주			목포			여수			흑산도		
	관측일	형태	적설 (cm)	관측일	형태	적설 (cm)	관측일	형태	적설 (cm)	관측일	형태	적설 (cm)
2009	11.2	소낙눈/ 진눈깨비	-	11.17	진눈깨비	-	11.16	눈	-	11.17	진눈깨비	-
2010	12.8	눈	-	12.9	진눈깨비 /소낙눈	-	12.26	소낙눈	-	12.14	소낙눈	-
2011	12.8	소낙성 진눈깨비 /소낙눈	0.4	12.8	소낙눈	0.1	12.24	소낙눈	-	12.8	소낙눈	-
2012	12.3	진눈깨비 /눈	-	12.4	진눈깨비 /눈	-	12.5	진눈깨비	-	12.4	소낙성 진눈깨비 /소낙눈	-
2013	11.18	진눈깨비	-	11.17	진눈깨비	-	11.27	소낙눈	-	11.18	소낙성 진눈깨비	-
2014	12.1	진눈깨비 /소낙눈	0.3	12.1	소낙성 진눈깨비	-	12.1	소낙눈	-	12.1	진눈깨비 /소낙눈	-
2015	11.26	진눈깨비 /소낙눈	5.5	11.26	소낙성 진눈깨비 /소낙눈	0.3	11.26	소낙성 진눈깨비 /소낙눈	-	11.26	소낙성 진눈깨비 /소낙눈	-
2016	12.14	소낙눈	-	11.24	소낙눈	-	12.23	소낙눈	-	11.24	소낙눈	-
2017	11.23	진눈깨비	-	11.18	진눈깨비	-	12.11	소낙눈	-	11.18	소낙성 진눈깨비	-
2018	12.7	소낙눈	-	12.7	소낙눈	1.1	12.8	소낙눈	-	12.7	소낙눈	-